

초·중학교 실과(기술·가정)교과서의 가족관련 단위 내용 비교분석: 구조기능론과 건강가정 관점에서*

A Content Analysis of the Family-related Unit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Practical Arts · Home Economics Textbooks :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Structural Functionalism and Healthy Family*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석사과정 김 자 영
교 수 조 병 은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tudent : Ja Young Kim
Professor : Byung Eun Ch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within the 7th Curriculum from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structural functionalism and healthy family. A quantitative and in-depth content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the five elements of family structure, family role, family relation, communication, dating and pregnancy. A healthy family Perspective was found in relation to the elements of family type and family role from the in-depth analysis of the elementary school practical arts textbook. In the middle school textbooks, the five elements reflected a strong structural-functionalist tendency. In both levels, the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indicated that a structural-functionalist viewpoint was prevalent in the graphical components of the textbooks, including pictures, diagrams and graphs.

주제어(Key Words) : 초·중학교 (Elementary · Middle school), 실과·가정(Practical Arts · Home Economics), 교과서 분석 (Content Analysis of Textbook), 가족단위(Family Unit), 구조기능론 (Structural Functionalism), 건강가정 관점(Healthy Family Perspective)

Corresponding Author : Ja Young Kim,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 Dongchun-Dong, Yeonsu-Gu, Incheon, Korea Tel: +82-32-446-5895 E-mail: neishya@hanmail.net

* 이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 2007년도 기성회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I. 서론

우리나라가 산업화에서 정보화의 시대로 급격하게 변하면서 가족구조의 다양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인한 가사양육과 일의 부조화, 출산율 저하, 혼인 및 이혼율의 변화, 국제결혼의 증가와 같은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 변화에 따라 1997년 발표되어 2001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단원을 독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최정혜, 2002).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내 가족 관련 내용이 다양한 고민을 안고 다양한 구조로 살아가는 가족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실감 있게 다가서지 못하고 정형화된 가족의 일반적인 삶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어 교과서 내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신상옥 외, 2000; 유태명, 2006). 또한 중학교 나와 가족관계 단원의 내용은 핵가족, 부부중심, 규범과 기능중심적인 가족관계로 서술하여 중학생이 실제 자신의 가족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교과내용으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표현하기에 제한적이고 갈등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며, 실천성이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았다(신상옥 외, 2000; 정선희, 조병은, 2007). 가족관계도 화목하거나 원만하게 지내는 것만을 강조하는 아니라 가족 내에 갈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며 현대 가족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가족의 구조와는 상관없이 가족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족역할 공유,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요소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김명자, 장지연, 2006; 손주영 외, 2006; 유태명, 2006).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내용을 이론적 관점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으나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 변화된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지 못하므로 변화된 가족에 대응할 수 있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교과서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이론적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성차별적인 내용을 밝혀 가족 관점보다는 성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강선미, 2004; 김미정, 유태명, 2004; 정혜숙, 2003; 김선경, 2002). 교과서의 가족과 관련된 단원을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양정혜, 김지경, 2002)에서도 성역할과 관련된 내용은 가족을 남과 여로 나누어 각각의 역할이 존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사회와 가정의 안녕이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다루지고 있는 가족은 행복한

결혼생활의 결과물이고 편안한 안식처로 설명되어 있어 변화하는 가족현상을 표현하는데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현대 가족구조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남녀역할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돌봄기능 약화, 가족폭력, 가족붕괴처럼 가족에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예방하고 도와주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어떠한 구조의 가족이든지 가족의 내적 기능을 강화해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유계숙, 2004; 유영주, 2002; 조희금, 박미석, 2004).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교과서에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므로 가족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이 잘되며 애정적·정서적 기능을 잘 발휘하여 기능적이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건강가정 관점으로 접근해야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대 가족 변화에 대응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실천성, 응용성,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 가정 교과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건강가정 관점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가족개념을 분석한 연구(전미경, 노영주, 이진경, 김자영, 김지영, 2007)에서는 가족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구조기능론으로 분석한 연구(양정혜, 김지경, 2002)에서는 구조기능론의 다양한 개념들 중 청소년의 가족 내 규범·가치 전달과 사회화, 성숙된 성인으로서의 인성의 발달이라는 두 가지 분석요소로 분석하여 현대 가족 현상을 반영하고 문제점을 밝히는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구조기능론과 건강가정 관점으로 교과서에서 나타난 가족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7차 교육과정 실과(기술·가정)교과서의 가족관련 단원에서 가족이 어떠한 관점으로 나타났는지를 가족역역에 관련된 개념들인 가족구조, 가족역할, 가족관계, 의사소통, 성·이성교제와 임신이라는 분석요소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교과서 개정 시 가족 관련 내용을 접근할 때 가족에 대한 관점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 5학년 실과 교과서와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 관련 단원을 가족구조, 가족역할과 관련된 내용에서 구조기능론과 건강가정 관점으로 얼마나 표현되어 있는지 심층·계량 분석한다.
- 2) 초등학교 5학년 실과 교과서와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 관련 단원을 가족관계, 의사소통, 성·이성교제와 임신과 관련된 내용에서 구조기능론과 건강가정 관점으로 얼마나 표현되어 있는지 심층 분석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이론적 배경

1) 가족 변화와 이론적 접근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에 의한 급속한 변화로 인해 가족의 구조와 크기뿐만 아니라 가족의 가치관도 변화하였으며, 심각한 가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결혼한 부모와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기본으로 하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현대에는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무자녀 가족, 동거 가족, 별거 가족, 노인 가족 등 다양한 구조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이 변화하면서 가족을 설명하는 이론도 변화하였다. 산업화 시대에는 지역적, 사회적 이동이 빈번하게 요구되므로 핵가족이 기능적으로 적합하다는 구조기능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구조기능론은 1950년대라는 특정 시기의 가족 이념에 적합한 이론으로 가족제도를 사회변화의 불안정성을 막는 요새나 삭막한 세상 속의 안식처로서 기능하며, 전통적 성역할을 가진 핵가족을 정상가족화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결혼가족으로 문제시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였다(정현숙, 유계숙, 2001, pp. 57-60).

여성의 취업을 통해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고 여성의 경제적 의존도가 감소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생활에서 여성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어 여성의 지위 변화로 인해 가족 가치관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정현숙, 2007, pp. 94-98). 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였고, 여성의 직업생활과 가사노동의 조화 부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저조, 자녀 양육과 양육·교육비 부담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가족역할의 공유가 절실해지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의 갈등과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에선 상황이 심각해져서 문제 및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가족 내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의 현상을 예방하고 도와주기 위해 건강가정 관점을 바탕으로 건강가정지원법을 공포하였으며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건강가정 관점은 가족생활의 문제와 병리현상에 초점을 맞추던 1960년~1970년대의 가족연구가 1980년대 가족의 긍정적 측면과 가족의 장점을 구축하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Healthy Family, Strong Family, Resilient Family, Functional Family, Optimal Family 등의 용어로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유영주, 1994)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이러한 가족변화를 겪으면서 가족의 내적 기능을 강화시켜야 함이

요구되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긴 관점이다. 건강가정 관점은 가족의 구조와 관계없이 내적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핵가족을 정상가족화하는 구조기능론에 비해 현대 가족을 설명하기 적합하며 가족구성원이 친밀하고 결속력이 있어 깨진 구조 속에서도 충분히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이혼, 재혼 등을 문제가 아닌 변화로 인식하는 것을 강조한다.

가족의 문제가 심각해서 사회가 도와주어 문제해결적 측면을 강조하는 건강가정 관점을 교과서에 제시하여 학생들이 현대 가족의 변화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구성원끼리 노력하거나 사회지원체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가정을 기능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2) 구조기능론

구조기능론은 1970년대까지 발달하였으며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기본으로 산업화시대의 가족을 설명하던 가족이론이다. 구조기능론에 따르면 가족은 사회의 하위체제로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즉, 가족은 출산기능을 통하여 사회의 성원을 충원하고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존재해야 하며 아버지는 공적 영역인 일터에서 임금노동을 하는 도구적 역할을, 어머니는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양육·가사노동을 수행하는 표현적 역할을(정현숙, 유계숙, 2001, pp. 57-58), 자녀는 사회에 필요한 성숙한 성인으로 사회화되는 역할(양정혜, 김지경, 2002)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어느 하나의 존재가 부재할 경우 가족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사회체제에 기능적인 가정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구조기능론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기능적·이상적인 가족구조로 간주한다. 구조기능론은 가족의 발전을 위해 가족 내 기능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해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체제 중 하나인 가족의 기능을 강조한다. 가족의 자립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핵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간주하는 구조기능론은 핵가족이 아닌 다양한 구조의 가족을 비정상가족으로 폄하하게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다양한 구조의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족 고유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이 발달하므로 핵가족을 이상적으로 보는 구조기능론 관점은 현대 사회 가족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구조기능론은 이혼처럼 가족이 해체되는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므로 결혼과 자녀출산이 필수이며 가족의 역할 경계를 지켜야 하므로 남녀, 부모 자식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또한 가족 내 갈등이 많으면 기능적이지 못하므로 갈등이 없이 사랑하고 화목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 때문에 현

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며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을 당위적인 성격으로 한정지음으로써 가족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 관점

건강가정 관점은 1960년대 미국의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건강가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건강가족은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건전가족(sound family), 강한 가족(strong family), 기능적 가족(functional family), 회복력 있는 가족(resilient family) 등의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발전시킨 개념이다(유영주, 2002). 건강가정 관점은 가정을 건강가정·비건강가정으로 이분하여 건강한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다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구조기능론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이상화한 것과 다르게 건강가정 관점에서는 가족구조와 상관없이 가족구성원이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고 정서적 기능을 잘 수행하면 기능적인 가정으로 본다. 가족 내에 존재하는 부정적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가족의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여 가족의 친밀감·결속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건강가정 관점이다.

건강가정은 가족이론은 아니지만 가족의 기능을 강조한 가족 관점으로 건강가정의 요소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유영주(2004)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목표 공유, 역할충실, 경제적 안정과 협력, 신체적 건강, 가족사회와의 유대감을, 유계숙(2004)은 공존적 노력, 긍정적 상호작용, 정신적 건강을, 양순미(2001)는 의사소통과 문제대응 및 가족정체감, 의사결정과 가족일체(유대감), 가족 융통성과 사회적인 지지, 가족의례 창출을 건강가정의 요소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조희금과 박미석(2004)은 건강가정이란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생활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가지며, 열린 대화가 가능하고 휴식과 여가를 공유하며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자원관리를 하며 가족역할을 공유하는 가정이라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며 건강한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문화를 유지하고 창조함을 강조하였다.

여러 학자의 의견을 수렴해볼 때, 건강가정은 가족의 구조와 관계없이 가족 구성원이 열린 대화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친밀감, 결속력과 같은 내적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공유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는 가족이라 할 수 있다.

2. 교과서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교과서는 교육과정 및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도구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주고자 하는 지식과 기술, 규범 등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개체이다. 대부분의 학습이 교과서 위주로 계획, 진행, 평가되는 상황에서 교과서의 중요성은 크다(김지희, 2001). 학생들이 경험하는 내용이 교과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무엇을 나타내는가에 따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실과(기술·가정)교과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목표, 내용체계 등을 분석하거나(기념호, 최유현, 2004; 윤인경, 2004; 이연숙, 2001; 이춘희, 2001) 각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하고(이지영, 2002; 정수경, 2004), 다른 교과와의 교육내용 관련성을 분석하거나(유태명, 1998)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강선미, 2004; 김미정, 김선경, 2002; 유태명, 2004; 정해숙, 2003) 등으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 교과서와 교육내용을 분석하거나(나유경, 2005), 창의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정미경, 1998). 실과(기술·가정)교과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가족관련 내용을 분석한 연구(양정혜, 김지경, 2002; 이지영, 2002; 정수경, 2004; 최정혜, 2002)와 교과서의 내용을 재편성하는 연구들(양정혜, 2004; 유태명, 2006)이 있었다.

교과서를 주로 양성평등적 또는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강선미, 2004; 김미정, 유태명, 2004; 김선경, 2002; 정해숙, 2003).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실과(기술·가정)교과서 내용이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불평등한 모습이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성인지적, 양성평등적 관점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 이외에 가족 이론적 관점으로 실과(기술·가정)교과서의 가족 관련 단원을 분석한 연구(양정혜, 김지경, 2002)에서 교과서 속의 가족은 행복한 결혼생활의 결과물이며 편안한 안식처로 설명되고 있어서 현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표현하는데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는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 구성과 부모로부터 전달받는 가치관, 규범의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적응으로 설명되고, 임신의 과정과 성행위에 관련된 내용을 생물학적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치측면의 고찰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이성적 판단과 반성적 사고를 통한 행동 선택이 아니라 성인 사회의 도덕적 지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분리해보면 삽화를 분석한 연구(강선미, 2004; 김미정, 유태명, 2004; 김선경, 2002; 손태룡, 이경애, 2004) 중 대부분의 삽화 분석은 삽화(사진과 그림)만으로 분

석하거나, 문장과 함께 심층 분석하는 것으로 분리되었고, 분석요소가 삽화의 외형적 요소 또는 등장인물과 관련된 내용적 요소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가족 관련 단원을 가족 이론적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는 적었으며 양성평등이나 성인 지적 관점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에서 남녀 불평등한 내용이 남아있어 구조기능론적인 관점으로 접근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과서에는 다양한 구조의 가족들이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가족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어야 한다. 실과(기술·가정)교과는 보다 건강하고 발전된 생활을 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실행하는 실천과학이다. 가족구조가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가족의 차이를 인정하고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 가족도 발전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 관점으로 가족을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III. 연구방법

제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학년 실과교과서 1권,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서 12권, 총 13권의 교과서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의 본문, 참고자료*, 사진과 그림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진과 그림은 해당 단원 전체 지면에 나온 모든 사진과 그림을 포함하며 가족을 포함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사진과 그림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자료는 본문을 제외한 읽을거리, 용어설명, 심화·보충학습, 인터넷 자료, 열린 교실(생각), 한걸음 더, 쉬어가기 등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내용이 아니며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들을 말한다.

교과서에서 가족과 관련된 단원의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가족구조, 가족역할, 가족관계, 의사소통, 성·이성교제와 임신과 같은 5가지 분석요소로 추출하여 각 분석요소마다 구조기능론과 건강가정 관점의 중요한 개념들을 하위 요소로 선별하여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의 관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문 및 참고자료의 심층 분석과 본문 및 참고자료, 사진과 그림의 계량분석으로 나뉜다. 심층 분석은 모든 분석요소로 구조기능론과 건강가정 관점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량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조기능론 관점은 △·▲·▲, 건강가정 관점은 ☆·☆·★의 기호로 가시화하여 나타내었다. 기호의 농도에 따라 각각 ☆·△는 1~2줄, ☆·△

는 3~5줄, ★·▲는 6줄 이상을 의미하고, 기호의 개수는 해당 내용이 제시된 횟수를 나타낸다. 기호 집계 방법은 각 기호가 나타내는 분량을 ☆:☆:★:△:△:▲ = 6:3:1의 비율로 ★, ▲ 기호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활동자료는 분량이 많아 제외하였다. 계량분석은 분석요소 특성 상 가족구조와 가족역할만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우리의 가정생활' 단원은 '가정의 소중함', '서로 돕는 가정생활'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석요소 중 가족구조와 가족역할에만 해당하므로 두 분석요소로 심층 분석하였다.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은 5가지 분석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모든 분석요소로 심층 분석하였다. 13권의 교과서를 임의로 기호화하였으며 각각의 분석요소와 관점에 따른 하위요소를 결과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가족구조

초등학교 '우리의 가정생활' 대단원의 '가정의 소중함' 중단원과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대단원의 '나와 가족관계' 중단원의 내용에는 가족구조가 중점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가족구조는 구조기능론과 건강가정 관점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 가족의 구조를 핵가족 위주로 표현하였는지,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는지, 가족의 구조와 상관없이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접근하였는지에 따라 관점을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 및 참고자료에 나타난 일반적인 가족에 대한 설명을 건강가정 관점과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비교 분석하고 사진과 그림에 나타난 가족구조, 단원개관에 나타난 가족구조,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예나 가족구조 명칭에 나타난 가족구조를 계량 분석하여 핵가족을 많이 제시하였는지, 기타 가족구조의 가족을 많이 제시하였는지, 어떠한 가족구조를 얼마만큼 제시하였는지 분석한다.

1)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내용에 대한 가족구조 심층 분석

다양한 가족을 설명한 경우에는 건강가정 관점에 포함되고, 가족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보거나, 핵가족만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구조기능론 관점에 포함된다.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에 대한 설명 중 구조기능론 관점과 건강가정 관점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초등학교 우리의 가정생활 단원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설명하여 건강가정 관점이 ★ = 1로 나타났다. "가정은 가족이

*참고자료 정의는 이정규, 김명자, 모태화, 박미정, 박선영, 조재순 (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활용함.

〈표 IV-1〉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내용에 대한 가족구조 심층 분석

| 구분 출판사 | 다양한 가족 | 사회기본단위 | 핵가족 중심 설명 | 계 구조기능론 관점 건강가정 관점 |
|-----------|----------|----------|-----------------|-----------------------|
| 初 | ★6 | . | . | . ★ |
| A | . | ▲34 | △△27 | △△△. |
| B | ☆32 | △36 | △△31△33 | △△△△☆ |
| C | . | . | △27 △△34 | △△△. |
| D | . | △28 | △22△28△32 | △△△△. |
| E | . | . | △37 | △. |
| F | ☆37 | . | △32△△40 | △△△☆ |
| G | ☆31 | ▲30 | . | △☆ |
| H | ★38~39 | △40 | △40 | △△★ |
| I | ☆34 | △8 | △20△32△34△35▲43 | △△△△△▲☆ |
| J | . | . | △29 △33△34△37 | △△△△. |
| K | . | △27 | . | △. |
| L | . | . | △△26 | △△. |
| 총계 | ★ 3.2 | ▲ 1.5 | ▲ 6.0 | ▲ 7.5 ★ 3.2 |

| 건강가정 관점 | 분량 | 구조기능론 관점 | 분량 |
|---------|-------|----------|-------|
| ☆ | 1~2줄 | △ | 1~2줄 |
| ☆ | 3~5줄 | ▲ | 3~5줄 |
| ★ | 6줄 이상 | ▲ | 6줄 이상 |

주. 初는 초등학교 5학년 실과 교과서를, A~L은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서를 의미한다.
 주. 기호 뒤의 숫자는 해당 쪽수를 의미하며 쪽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호 마지막에 한번만 제시하였다.

모여 함께 생활하는 곳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범위와 수, 연령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혈연관계 없이 가족으로 함께 사는 경우”처럼 초등학생들이 알기 쉽게 가족구조의 특성을 풀어서 제시하거나 가족구성원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다양한 가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가족을 애정과 보살핌으로 엮인 관계, 비혈연 관계를 수용한 것으로 설명하여 건강가정 관점을 나타내었다.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에서 가족을 사회의 기초집단으로 설명한 구조기능론 관점은 ▲ = 1.5로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K)”처럼 짧게 제시하거나 “가족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집단이며 건강한 가정 없이는 건강한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사회는 가족의 중요한 생활환경이며 원만한 가족 형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한다(A).”처럼 길게 제시하고 있었다. 대부분 가족과 관련된 설명을 시작하거나 사회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핵가족 중심으로 설명한 구조기능론 관점은 ▲ = 6.0으로 “가족은 결혼과 혈연으로 맺어져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단, 핵가족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형태(I)”처럼 표현되었다. 대부분 가족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핵가족 위주의 설명으로 제시되었다. 가족 관계에서 설명된 가족 구성원도 대부분 부모-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손자녀 관계를 다루고 있어서 핵가족 중심으로 설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에서 다양한 가족을 설명하여 건강가정 관점은 ★ = 2.2로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므로 개인이 경험하는 가족 관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I).”라고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교과서 H는 다른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던 ‘현대 사회의 가족 변화’와 관련된 단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가족의 변화와 함께 가족구조가 다양해지고 있음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가족구조에서의 결과를 보면 가족의 구조가 다양하다는 건강가정 관점이 부족하고, 핵가족 위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조의 다양성은 대부분 핵가족과 관련된 설명이 먼저 제시되고 다양한 구조의 가족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가족구조에서 건강가정 관점이 나타난 횟수는 6회, 구조기능론 관점이 나타난 횟수는 34회로 구조기능론 관점이 나타난 횟수가 건강가정 관점이 나타난 횟수보다 약 6배가 많았다. 이것은 교과서 내에서 건강가정 관점보다 구조기능론 관점을 더 자주

〈표 IV-2〉 사진과 그림에 나타난 가족구조

| 가족구조 | 初 | 빈도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소계 (회) | 빈도 (%) | 총계 (회) | 총빈도 (%) | |
|------------------|-----|--------|------|---|---|---|---|---|---|---|---|---|---|---|--------|--------|--------|---------|------|
| 핵가 | 4인 | 3 | 30.0 | · | 1 | 1 | 2 | 3 | 3 | 1 | 4 | 7 | 2 | 1 | · | 25 | 51.0 | 28 | 45.9 |
| | 3인 | · | 0 | 1 | 1 | 1 | 1 | · | 1 | 2 | · | 1 | 3 | · | · | 11 | 20.4 | 11 | 18.0 |
| 족 | 기타 | · | 0 | · | 2 | · | · | · | · | · | · | · | · | · | · | 2 | 2.0 | 2 | 3.3 |
| 확대가족 | | 2 | 20.0 | 3 | · | 1 | · | · | 1 | 2 | 1 | 1 | 1 | · | 3 | 13 | 26.6 | 15 | 24.6 |
| 기 타 가 족 | 한부모 | 2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2 | 3.3 |
| | 무자녀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0 | 0 |
| | 독신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0 | 0 |
| | 노인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0 | 0 |
| | 입양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0 | 0 |
| | 조손 | 2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2 | 3.3 |
| | 기타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1 | 1.6 |
| 총계(회) | 10 | 100 | 4 | 2 | 3 | 3 | 3 | 5 | 5 | 5 | 9 | 6 | 1 | 3 | 49 | 100 | 61 | 100 | |

주. *표시는 장애인 자녀가 있는 4인 핵가족을 의미함.

쉽게 찾아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사진과 그림에 나타난 가족구조 계량분석

본문과 참고자료 외에도 교과서의 사진과 그림 속 가족의 모습에서 가족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과 그림에 나타난 가족구조가 핵가족만 제시된 경우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핵가족 외에 가족구조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면 건강가정 관점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관련된 단원에 제시된 사진과 그림에 나타난 가족구조를 살펴보고 어떠한 관점이 주로 제시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그중 단원개관에 나타난 가족구조를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 단원의 시작 부분은 대부분 사진과 그림을 제시하여 그 단원에 대한 개념과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떠한 사진과 그림이 제시되었느냐에 따라 그 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단원개관에 제시된 사진과 그림 속 가족구조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진과 그림에 나타난 가족구조와 그 중 일부인 단원개관의 사진과 그림에 나타난 가족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우리의 가정생활' 단원의 가족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과 그림에서 핵가족 30%(3회), 확대가족 20%(2회), 기타가족 50%(5회)로 기타 구조의 가족이 많이 나타났으나 한 번에 편모 가족, 편부가족, 조모-손자가족, 아들이 장애인인 핵가족, 확대가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가족이 제시된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주로 핵가족이 제시되었다. 핵가족을 기본적인 가족구조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의 가족과 관련된 사진과 그림에서 핵가족이 73.4%(38회)로 확대가족 26.6%(13회)보다 약 3배 많게 나타났으며 기타 가족구조의 사진과 그림은

발견할 수 없었다.

초·중학교 전체 합계를 보면 핵가족이 67.2%(41회)로 확대가족 24.6%(15회)보다 2.5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핵가족 중 4인 가족이 45.9%(28회)로 3인 가족 18.0%(11회)나 기타 핵가족 3.3%(2회)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기타가족은 8.2%(5회)로 모두 초등학교에서 나타났다.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에서 가족이 제시된 사진과 그림은 매우 적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사진과 그림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사진과 그림 속에 제시된 가족구조는 모두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형태이고 기타 형태의 가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것은 핵가족을 중시하는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우리의 가정생활' 단원은 건강가정 관점으로,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은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단원개관의 사진과 그림 속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초·중학교 가족 관련 단원개관 사진은 핵가족은 29.2%(7개), 확대가족은 20.8%(4개), 기타 50%(12개 중 청소년 9개)로 기타 내용이 많았는데 주로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초·중학교 가족관련 단원개관 사진과 그림이 가족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모두 핵가족과 확대가족구조로 나타났고 기타 가족구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이미지로 핵가족과 확대가족을 떠올림으로써 이러한 가족구조를 정상가족화할 수 있으므로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3)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내용에 대한 가족구조 계량분석

본문과 참고자료에서 가족구조에 대한 서술적 설명에서 가족구조를 예를 들어 나열한 경우와 학습내용과 관련된 내

〈표 IV-3〉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예나 가족구조 명칭에 나타난 가족구조

| 가족구조 | 初 | 빈도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소 계 (회) | 빈도 (%) | 총 계 (회) | 총빈도 (%) | |
|------|----------|--------|------|---|---|---|---|---|---|---|---|---|---|---|---------|--------|---------|---------|------|
| 핵가족 | 4인 | 1 | 14.3 | 1 | · | · | · | 1 | · | 2 | · | · | · | 1 | · | 5 | 16.1 | 6 | 15.7 |
| | 3인 | · | 0 | 1 | · | · | 1 | 1 | · | 1 | · | 1 | 1 | 1 | 1 | 8 | 25.8 | 8 | 21.1 |
| 확대가족 | 1 | 14.3 | · | · | · | · | · | · | 1 | · | 1 | · | · | · | 2 | 6.5 | 3 | 7.9 | |
| 기타가족 | 맞벌이가족 | · | 0 | 1 | · | 1 | · | · | · | · | · | · | · | · | 1 | 3 | 9.7 | 3 | 7.9 |
| | 한부모가족 | 2 | 28.5 | · | 1 | · | · | · | · | · | 1 | · | · | · | 1 | 3 | 9.7 | 5 | 13.2 |
| | 무자녀가족 | · | 0 | · | · | · | · | · | 1 | · | 1 | · | · | · | · | 2 | 6.5 | 2 | 5.3 |
| | 재혼가족 | · | 0 | · | 1 | · | · | · | · | · | 1 | · | · | · | · | 2 | 6.5 | 2 | 5.3 |
| | 독신가족 | · | 0 | · | · | · | · | · | · | · | 1 | · | · | · | · | 1 | 3.2 | 1 | 2.6 |
| | 노인가족 | · | 0 | · | · | 1 | · | · | · | · | 1 | · | · | · | · | 2 | 6.5 | 2 | 5.3 |
| | 소년소녀가장가족 | 1 | 14.3 | · | · | · | · | · | · | · | · | 1 | · | · | · | 1 | 3.2 | 2 | 5.3 |
| | 조손가족 | 1 | 14.3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1 | 2.6 |
| | 비혈연가족 | 1 | 14.3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1 | 2.6 |
| | 동거가족 | · | 0 | · | · | · | · | · | 1 | · | · | · | · | · | · | 1 | 3.2 | 1 | 2.6 |
| | 장애인가족 | · | 0 | · | · | 1 | · | · | · | · | · | · | · | · | · | 1 | 3.2 | 1 | 2.6 |
| | 조손가족 | 1 | 14.3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1 | 2.6 |
| | 조손가족 | 1 | 14.3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1 | 2.6 |
| | 소계 | 5 | 71.4 | 1 | 2 | 3 | 0 | 0 | 2 | 0 | 6 | 0 | 0 | 0 | 2 | 16 | 51.6 | 21 | 55.3 |
| | 총 계(회) | 7 | 100 | 3 | 2 | 3 | 1 | 2 | 2 | 4 | 6 | 2 | 1 | 2 | 3 | 31 | 100 | 38 | 100 |

주. 1인 가구는 독신 가족으로, 이혼가족은 한부모가족으로, 독거노인 가족은 노인가족으로 포함시켰다.

용을 가족의 예로 들어 제시한 경우가 있다. 가족구성원들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경우 가족구조를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족구조뿐만 아니라 설명 중 제시된 가족구조의 예를 통해 이론적 관점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족의 구조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나, 한부모 가족, 노인 가족, 재혼 가족처럼 가족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경우를 집계하였다. 가족이라 추정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하였으며 의미가 동일한 단락에서 반복되는 경우는 중복 집계하지 않았다.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예나 가족구조명칭에 나타난 가족의 구조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초등학교 '우리의 가정생활' 단원에서 핵가족 14.3%(1회), 확대가족 14.3%(1회), 기타가족 71.4%(5회)로 기타가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가족구조는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족, 조손가족, 비혈연가족이 제시되었다.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에서 본문과 참고자료에서 핵가족이 41.9%(13회), 확대가족이 6.5%(2회), 기타가족이 51.6%(16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기타 가족이었다. 그러나 기타 가족이 교과서 H로 밀집되어 제시된 경향이 있으며 해당 교과서 내에서도 한 단원에서 다양한 가족의 명칭이 열거 된 형식이었다.

핵가족이 학습내용에서 가족 구성원을 통해 가족구조를 알아볼 수 있게 적용되어 설명된 것처럼 기타 가족이 적용된 것은 교과서 L에서 엄마가 안 계시는 명수를 위해 반 친구들이 생일잔치를 처음 해주는 내용을 일기형식으로 나타낸 경

우박에 찾아 볼 수 없었다. 핵가족은 비록 기타가족에 비해 횟수는 적지만 횟수 당 교과서 지면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기타가족보다 많았으며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문제라든지, 적용되는 예를 4인 가족 또는 3인 가족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초·중학교 가족 관련 단원의 본문과 참고자료에서 나타난 가족구조가 사진과 그림에 나온 가족구조보다 횟수가 더 적었다. 가족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일반적인 가족에 대한 설명일지라도 그 옆에 사진과 그림이 첨가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사진과 그림에 나타난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많았던 반면, 본문과 참고자료에서 나타난 가족구조는 기타가족이 많았다.

2. 가족역할

초등학교 '우리의 가정생활' 단원 중 '서로 돕는 가정생활'과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의 성격역할과 '나와 가족관계'에서 가족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가족구성원들의 역할을 공유하느냐 뚜렷하게 구분하는가,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가족의 역할을 강조했는지의 여부로 이론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기능론은 가족원 개인의 발달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가족 자체의 안정을 통한 사회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아버지는 경제적 역할과 같은 도구적 역할을 어머니는 가사노동, 자녀양육, 정서적 역할과 같은 표현적 역할을, 부모는 자녀를 사회화하여 사회 체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각각 가족 구성원 역할의 경계를 지켜가는

〈표 IV-4〉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역할에 대한 심층 분석

| 구분 출판사 | 가사노동 역할공유 | 자녀양육 역할공유 | 정서적 역할공유 | 경제적 역할공유 | 자녀 사회화 | 구조기능론 관점 | 건강가정 관점 |
|-----------|--------------|--------------|-------------|-------------|------------------|----------|----------|
| 初 | ☆5★9 | . | . | . | △6 | △ | ☆★ |
| A | . | . | . | . | △22△27 | △△ | |
| B | . | . | . | . | △31 | △ | |
| C | . | . | . | . | . | . | |
| D | . | . | . | . | . | . | |
| E | . | . | . | . | △36△37 | △△ | |
| F | ☆37 | . | . | ☆37 | △14△32 | △△ | ☆ |
| G | ☆32 | . | . | . | △30△35△39 | △△ | ☆ |
| H | ☆39 | ☆39 | . | ☆39 | . | △ | ☆☆☆ |
| I | . | . | . | . | △32△33 | △△ | . |
| J | . | . | . | . | △11 △15△ △18 △33 | △△ △△ △△ | . |
| K | ☆27 | . | . | . | . | . | ☆ |
| L | . | . | ☆27 | . | . | . | ☆ |
| 총 계 | ★ 2.0 | ★ 0.2 | ★ 0.2 | ★ 0.3 | ▲ 3.5 | ▲ 3.5 | ★ 2.7 |

것을 안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건강가정 관점은 상황과 능력에 따라 가족역할을 공유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본다. 따라서 본문과 참고자료에서 가사노동, 자녀양육, 경제적 역할, 정서적 역할에 대해 양성평등하게 쓰여 있는지, 자녀의 사회화를 강조하였는지, 사진과 그림 속 인물의 모습과 옷차림과 사진과 그림, 본문과 참고자료에서 남녀 역할 분리 또는 공유를 강조하였는지를 조사해보았다.

1)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내용에 대한 가족역할 심층 분석

정서적 역할, 경제적 역할, 가사노동, 자녀 양육 네 가지 측면에서 남녀 역할 구분을 강조하였는지, 역할 공유를 강조하였는지 알아보고, 또한 구조기능론에서 주장하는 자녀의 사회화 역할이 강조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초등학교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본문 및 참고자료에서 제시된 설명 중 가족역할에 대해서 가사노동 역할 공유인 건강가정 관점은 ★ = 1.2로 나타났으나, 자녀양육 · 정서적 · 경제적 역할 공유에 대한 건강가정 관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가정생활' 단원 중 '서로 돕는 가정생활'에서 가사공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녀 사회화에 대한 구조기능론 관점은 ▲ = 0.2로 나타났으나 많지는 않았다.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에서 제시된 가족역할 측면의 관점은 가사노동 역할 공유는 ★ = 0.8, 자녀양육 역할 공유는 ★ = 0.2, 정서적 역할 공유는 ★ = 0.2, 경제적 역할 공유는 ★ = 0.3으로 구조기능론 관점은 없었으나 건강가정 관점이 총 ★ = 1.5로 적게 나타났다. '성역할'에 대해 공유한다는 내용은 나오나, 가사노동, 자녀양육, 정서적 역할, 경

제적 역할과 연계해 설명하기보다 진로 및 직업 선택과 관련 지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가족역할 분담에 있어서 "남녀가 역할을 분담해야한다."처럼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쓰인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족역할에서 자녀 사회화와 관련된 구조기능론 관점은 ▲ = 3.3이었으며 나와 가족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회화한다는 내용으로 언급되었다.

2) 사진과 그림에 나타난 가족역할 계량분석

가족역할을 본문과 참고자료의 설명뿐만 아니라 사진과 그림에서도 가족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어떠한 가족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역할을 분리하여 나타내었는지, 공유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부모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였고 가사노동은 설거지, 식사 준비, 청소 등과 같은 활동을 자녀양육은 자녀 돌보기, 교육, 훈육 하는 등의 경우를, 정서적 역할은 애정을 표현함으로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것을 표현한 경우를, 경제적 역할은 돈을 버는 행위나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집계하였다. 그리고 앞치마와 머릿수건은 가사노동을 한다는 인식을 쉽게 알 수 있는 근거로 앞치마나 머릿수건을 한 경우 그 사람을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사진과 그림에 가사노동을 할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앞치마나 머릿수건을 한 경우와 가사노동과 관련 없이 앞치마나 머릿수건을 한 경우를 조사하였다. 가족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초등학교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가족역할 유형은 가사노동이었다. 아버지가 23.1%(3회), 어머니가 38.4%(5회)로 어머니가 약간 많게 나타났다. 빨래 널고 있는 어머니를 아들이 도와주는 모습, 가족이 함께 앨범을 보는데 어머니는 과일을 꺾는 모습으로 가사노동을 여전히 여

머니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 양육은 아버지, 어머니 둘 다 7.7%(1회)로 아픈 아들을 간호하는 어머니, 딸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란히 제시되었다. 경제적 활동도 아버지, 어머니 둘 다 7.7%(1회)로 부모님이 농사를 하는 모습이 한 장면 제시되었으며, 정서적 역할은 아버지가 7.7%(1회)로 자녀와 함께 앨범을 보고 있는 모습이 제시되었으나 어머니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전히 가사노동은 어머니의 몫으로 여기는 구조기능론 관점을 엿볼 수 있었다.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분석결과 부모가 함께 일하러 나가는 모습은 경제적 역할을 부부가 공동으로 한다는 인식을 나타내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둘 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약 3배, 2배 정도 많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역할은 근소한 차이로 어머니가 많게 나타났다. 시장에 다녀 온 엄마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 설거지 하고 있는 엄마가 아들과 대화하는 모습, 설거지를 하는 엄마와 거들어 주는 아빠 등이 제시되어 어머니를 가사노동 또는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아버지는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제시되어 어머니가 표현적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는 구조기능론 관점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초·중학교 가족 관련 단원에서 모두 앞치마를 한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가 2~13배 많이 나타났다. 앞치마를 한 경우 아버지는 12.0%(3회), 어머니는 68.0%(17회), 머릿수건을 한 경우 어머니가 20.0%(5회)로 나타났고 아버지가 머릿수건 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버지는 가사노동을 할 때에만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으나 어머니는 가사노동 뿐만 아니라 아픈 아들을 보살피거나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가사노동과 관련 없는 일을 할 때에도 앞치마를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같이 가사노동을 하고 있어도 어머니만 앞치마를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경우도 많았고 아버지가 머릿수건을 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

웠다. 어머니라고 하면 가사노동의 종류와 상관없이 앞치마를 입거나 머릿수건을 하고 있는 그림을 통해 여전히 어머니가 가사노동의 담당자라는 의식이 담긴 구조기능론 관점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내용에 대한 가족역할 계량분석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역할에 대한 서술적 설명이 아니라 가족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경우에서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문과 참고자료에 나타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역할들을 가사노동, 자녀양육, 정서적 역할, 경제적 역할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초·중학교 가족 관련 단원에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둘 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많게 나타났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인 어머니께 보답하기 위해 집안일도 거들어 드려야겠다.”는 내용을 예로 들었고 학생이 짜놓은 생활계획표 안에 “어머니 식사준비”라는 내용을 통해 가사노동, 자녀양육, 정서적 역할을 어머니가 담당한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역할에서는 양성성을 강조하지만 본문과 참고자료 또는 사진과 그림에 나타난 부모의 역할 모습을 보면 어머니는 가사노동을, 아버지는 일을 하고 저녁에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사오는 것처럼 전통적 성역할을 나타내어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쓰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가족 관련 단원에서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내용이 1회 제시(J)되어 있었으나 여성의 역할이 가사노동, 자녀양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적 역할까지 남성과 같이 하는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남성의 역할은 가사노동, 자녀양육에서 어머니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표 IV-5> 사진과 그림에 나타난 부모의 가족역할 유형

| 출판사 가족역할유형 | 출판사 | 初 | 빈도 (%) | A B C D E F G H I J K L | | | | | | | | | | | | 소계 (회) | 빈도 (%) | 총계 (회) | 총빈도 (%) |
|---------------|-----|----|-----------|-------------------------|---|---|---|---|---|---|---|---|---|---|---|-----------|-----------|-----------|------------|
| | |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 | | |
| 가사노동 | 부 | 3 | 23.1 | 1 | · | 1 | · | · | · | 1 | · | · | · | · | 1 | 4 | 9.3 | 7 | 12.5 |
| | 모 | 5 | 38.4 | 1 | 2 | 2 | 2 | · | · | 1 | 1 | · | · | 2 | 1 | 12 | 27.9 | 17 | 30.4 |
| 자녀양육 | 부 | 1 | 7.7 | · | · | · | 1 | · | 2 | · | · | · | 1 | 2 | · | 6 | 14.0 | 7 | 12.5 |
| | 모 | 1 | 7.7 | 3 | 1 | · | · | · | 2 | · | · | 3 | 1 | 2 | · | 12 | 27.9 | 13 | 23.2 |
| 경제적 역할 | 부 | 1 | 7.7 | · | · | · | · | · | · | · | 1 | · | · | · | · | 1 | 2.3 | 2 | 3.6 |
| | 모 | 1 | 7.7 | · | · | · | · | · | · | · | 1 | · | · | · | · | 1 | 2.3 | 2 | 3.6 |
| 정서적 역할 | 부 | 1 | 7.7 | 1 | · | 2 | · | · | · | · | · | · | · | · | · | 3 | 7.0 | 4 | 7.1 |
| | 모 | · | 0 | · | · | 2 | 1 | · | 1 | · | · | · | · | · | · | 4 | 9.3 | 4 | 7.1 |
| 총계(회) | | 13 | 100 | 6 | 3 | 7 | 4 | 0 | 5 | 2 | 3 | 3 | 2 | 6 | 2 | 43 | 100 | 56 | 100 |

〈표 IV-6〉 본문과 참고자료에 나타난 부모의 가족역할 유형

| 출판사 | 초 | 빈도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소계 (회) | 빈도 (%) | 총계 (회) | 총빈도 (%) |
|--------|---|--------|---|---|---|---|---|---|---|---|---|---|---|---|--------|--------|--------|---------|
| 가사노동 | 부 | 0 | · | · | 1 | · | · | · | · | · | · | · | · | · | 1 | 3.7 | 1 | 3.0 |
| | 모 | 2 | · | · | 1 | · | 2 | · | 1 | · | · | · | 1 | · | 5 | 18.5 | 7 | 21.2 |
| 자녀양육 | 부 | 0 | · | · | · | · | 1 | · | 1 | · | 1 | · | 1 | · | 4 | 14.8 | 4 | 12.1 |
| | 모 | 1 | · | · | 1 | 3 | 4 | 1 | 2 | · | · | 1 | 1 | 1 | 14 | 51.9 | 15 | 45.5 |
| 경제적 역할 | 부 | 0 | · | · | · | · | · | · | 1 | · | · | 1 | · | · | 2 | 7.4 | 2 | 6.1 |
| | 모 | 0 | · | · | · | · | · | · | · | · | · | 1 | · | 1 | 3.7 | 1 | 3.0 | |
| 정서적 역할 | 부 | 1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1 | 3.0 |
| | 모 | 2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2 | 6.1 |
| 총 계(회) | 6 | 100 | 0 | 0 | 3 | 3 | 7 | 1 | 5 | 0 | 1 | 3 | 3 | 1 | 27 | 100 | 33 | 100 |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여성의 역할이 과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과 참고자료의 심층 분석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공유해야 한다는 건강가정 관점이 나타났으나, 사진과 그림, 본문과 참고자료의 계량분석에서는 표현적 역할의 담당자가 어머니로 강조되어 나타났다. 내용으로 설명할 경우에는 역할 공유로 설명하지만 가족의 예를 들거나 사진 그림을 제시할 때에는 전통적 성역할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가족관계

초등학교 '우리의 가정생활' 단원은 '가정의 소중함', '서로 돕는 가정생활'로 가족관계에 있어서 갈등이나 가족문제를 찾아 볼 수 없으나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 중 '나와 가족관계'에서 갈등이나 가족문제를 찾아 볼 수 있다. 현대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달리 연령, 성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가족관계가 항상 원만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또한 많은 시간을 함께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하는 가족의 특성상 의사소통 갈등이나, 역할, 권력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구조기능론은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나 갈등이 많으면 가족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우므로 역기능적이라 보았다. 반면 건강가정 관점은 갈등의 존재가 많고 적음을 문제화하는 것보다는 해결하려는 측면을 더 강조한다. 또한 사회가 가족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며 가족 구성원도 어려움에 대처하거나 위기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중학교 가족관련 단원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지 않고 원만하고 규범적인 가족관계를 강조하였는지, 가족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가족문제에 대해 문제해결 측면으로 제시하지 않고 갈등이 있음을 부정적으로 보아 구조기능론 관점이 나타났는지, 가족관계의 갈등·가족문제를 문제해결 측면으로 강조하며,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설명하여 건강가정 관점이 나타나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중학교 가족 관련 단원에서 갈등이 있음을 제시하지 않고

〈표 IV-7〉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

| 구분 | 원만하고 규범적인 가족관계 강조 | 갈등·가족문제에 대한 접근 |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법 | 계 | | |
|-----|-------------------|----------------|--------------------|---------|-----------|-------|
| 출판사 | 문제해결적 접근 | 부정적·비문제해결적 접근 | 구조기능론 관점 | 건강가정 관점 | | |
| A | △8△9 △14 △28△34 | ☆27☆30☆32 | · | △△△△△△ | ★☆☆☆ | |
| B | ▲16▲31▲33▲34 | ★32☆36 | ▲31-32 | · | △△△△△ | ★☆☆ |
| C | △8 △15 △34△35 △39 | ☆17★20★38 | · | · | △△△△△ | ★☆☆ |
| D | △9△28▲28-29 | ★30★33 | △20 | · | △△△ | ★★ |
| E | △36△37▲39 | ☆9☆41 | △16△22▲37-38▲39△44 | ☆38 | △△△△△△△▲▲ | ☆☆☆ |
| F | △9△△△32△35△36 | ★33☆36 | △14△34 | · | △△△△△△△ | ☆☆ |
| G | △13▲32 | ★34☆36 | △9 | ☆34★36 | △△▲ | ☆☆☆☆ |
| H | ▲40 | ☆47 | ▲33△45 | ★47★48 | △▲▲ | ★★☆ |
| I | ▲8 △9△32△△34 △37 | ☆20☆40 | △▲36 | · | △△△△△△▲▲ | ☆☆ |
| J | △9 △11△35 | ★34★37☆40 | △11▲18△37 | ★40 | △△△△△▲ | ★★☆☆ |
| K | △△9 △27▲27 | ☆27☆29 | · | ☆32 | △△▲ | ☆☆☆ |
| L | △6△7 △26▲28△30 | ☆26☆27☆29 | ▲27 | ☆29 | △△△▲▲ | ☆☆☆☆ |
| 총 계 | ▲20.0 | ★13.9 | ▲9.7 | ★5.8 | ▲29.7 | ★19.7 |

원만한 가족관계나 규범적인 가족관계를 제시한 경우는 ▲ = 20.0으로 나타났다. 갈등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통한 원만한 가족관계를 형성한다고 제시하거나, “다른 형제에게 질투심이 느껴질 때에는 나는 그들에게 없는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부모 다음으로 나를 아껴주고 도와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본다(B).”처럼 규범적인 가족관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갈등이나 가족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문제해결 측면으로 보지 않은 경우는 ▲ = 9.7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 받을 때나 외로울 때 또래들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 있다(B).”처럼 문제해결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부터의 위안을 받는다는 비문제해결적 측면으로 갈등·가족문제를 다룬 경우가 있었다.

문제해결 측면으로 접근한 갈등·가족문제 제시가 ★ = 13.9, 구체적인 문제해결방법 제시를 한 경우가 ★ = 5.8이었다. 갈등이 있음을 간략하게 제시된 경우가 많았으나 갈등 및 가족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문제해결 방법이 대부분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다른 문제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다.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문제 해결의 지혜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복지 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가족 문제는 얼마든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J).”처럼 가족의 문제를 사회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라고 제시된 경우도 있었다.

4. 의사소통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의 ‘나와 가족관계’에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의사소통은 가족

의 내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가족구성원이 서로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건강가정 관점에 따르면 건강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빈정대거나 무시하는 말을 서로 하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유영주, 2004). 또한 서로 칭찬하고 비난하지 않고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며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유계숙, 2004). 가족 구성원은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 함께 하는 시간이 길며,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평상시 의사소통에 대해 부정적·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공유해야하기 때문에 서로의 욕구를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부정적·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여 사소한 마찰이 잦아 그로 인한 갈등의 심화로 가족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 내에 존재하는 부정적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가족의 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건강한 가족이다. 그러나 가족 내의 긍정적 의사소통만을 제시한다면 부정적 의사소통을 간과하여 가족 내에 나타나고 있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깊어질 수 있다. 부정적 의사소통을 제시하고 개선하여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가족의 친밀감·결속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강가정 관점이다. 그런데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소개되지 않고 이상적인 내용만 제시되어 있어서 실천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정선희, 2007). 따라서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의 ‘나와 가족 관계’의 본문 및 참고자료에서 긍정적인 의사소통만을 강조하

〈표 IV-8〉. 본문과 참고자료의 의사소통에 대한 심층 분석

| 구분 출판사 | 긍정적 의사소통 | 부정적 의사소통 | 부정적 의사소통 개선방법 | 계 구조기능론 관점 건강가정 관점 |
|-----------|-----------------|-------------|------------------|-------------------------|
| A | △30△31▲32▲33 | ☆31 | . | △▲▲ ☆ |
| B | ▲35▲36 | . | . | △▲ . |
| C | △▲36 | ☆36 | . | △▲ ☆ |
| D | ▲31▲32 | ☆32 | . | ▲▲ ☆ |
| E | ▲42▲43△44 | . | . | △▲▲ . |
| F | ▲37▲38△39 | ★38 | . | △▲▲ ★ |
| G | ▲△35 | . | . | △▲ . |
| H | ▲43▲45 | ★44 | . | ▲▲ ★ |
| I | ▲40▲41▲41-42△42 | ★39 | . | △▲▲▲ ★ |
| J | △▲38△39 | ☆39 | . | △△▲ ☆ |
| K | ▲30▲31 | ★33 | . | ▲▲ ★ |
| L | △29△▲ 30 | . | . | △△△ . |
| 총계 | ▲ 21.9 | ★ 4.7 | ★ 0 | ▲ 21.9 ★ 4.7 |

여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접근했는지, 긍정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부정적 의사소통도 제시하여 부정적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문제해결측면으로 접근하여 건강가정 관점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IV-8>과 같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긍정적·부정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긍정적 언어로 말하기, 격려의 말 행동하기, 인정, 관심, 배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도 반응하기, 이기려하지 않기, 언어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균형 이루기, 경청(잘 듣기), 나 전달법과 같은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이 많았다. 이처럼 긍정적 의사소통은 ▲ = 21.9로 매우 많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의사소통을 제시한 경우는 ★ = 4.7로 긍정적 의사소통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났다. 부정적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단어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거나 “의사소통의 방해요소”로 불신, 무관심, 걱정을 하나의 소단원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의 여러 종류를 제시한 경우(F, H, K)도 있었지만 부정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예시 외에 부정적 의사소통의 의미, 부정적 의사소통의 개선 방법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사소통에서 부정적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방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교과서에서 부정적·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보다 의사소통의 방해요소, 장애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부정적·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의미, 종류 및 예,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수정하는 활동이 함께 제시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의사소통 내용이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접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성·이성교제와 임신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의 ‘청소년의 특성’, ‘성과 이성교제’에서 성, 이성교제, 임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구조기능론 관점에서 성관계는 자녀를 낳기 위한 수단이며, 이성교제는 결혼을 위한 배우자 선택의 전단계이고, 임신을 결혼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본다. 그러나 건강가정 관점에서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결혼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 선택을 위해서 이성교제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아 성장·발달, 내적 성숙 등을 위해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성관계는 자녀를 낳기 위한 수단이며,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은 현대의 성가치관을 설명하기에 규범적이며 포용력이 적다. 따라서 교과서 내 가족 관련 내용 중 본문 및 참고자료의 내용에서 결혼 전 순결을 강조하는 것처럼 성을 규범적으로 표현하였는지, 배우자 선택을 위한 이성교제로 나타냈는지, 임신을 필수사항 또는 선택사항으로 접근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중학교 가족관련 단원에서 규범적 성 표현이 ▲ = 4.8로 구조기능론 관점 하위 요소 중 가장 많이 나타났다. “사정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성적 성숙의 증거이기도 하다(D).”처럼 성적 성숙을 부모됨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 많았고 성행위에 대해 부모가 되고, 종족을 보전하는 것으로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주체는 부부임을 강조한 경우가 있었다. 순결이 제시된 경우,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하며 육체적 순결 뿐 아니라 정신적 순결도 지켜

<표 IV-9> 본문과 참고자료의 성·이성교제와 임신에 대한 심층 분석

| 출판사 | 구분 | 규범적 성 표현 | 배우자 선택을 위한 이성교제 | 임신 선택·필수 | 계 | 구조기능론 관점 | 건강가정 관점 |
|-----|----|-----------------|-----------------|----------------------|----------------------|----------|---------|
| A | | ▲23 | . | . | ▲ | . | . |
| B | | ▲26 | ▲25 | . | ▲▲ | . | . |
| C | | ▲24▲25 | ▲30 | . | ▲▲▲ | . | . |
| D | | . | . | . | . | . | . |
| E | | ▲13▲13▲28▲30 | ▲26 | ▲29▲30 | ▲▲▲▲▲ | . | . |
| F | | ▲25▲25▲26▲28▲31 | . | . | ▲▲▲▲▲▲▲ | . | . |
| G | | . | . | ▲23▲24 | . | . | . |
| H | | ▲29▲35 | ▲33 | . | ▲▲▲ | . | . |
| I | | . | . | . | ▲▲ | . | . |
| J | | ▲24▲27 | ▲29 | . | ▲▲▲ | . | . |
| K | | . | . | . | . | . | . |
| L | | . | ▲23▲24 | . | ▲▲▲ | . | . |
| 총계 | | ▲ 4.8 | ▲ 1.3 | ★ ▲ 0.0 0.8 | ▲ ★ 6.9 0.0 | | |

야 한다는 내용과 결혼이라는 특정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결혼을 순결의 당연한 과정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도 있었다.

배우자 선택을 위한 이성교제와 관련한 구조기능론 관점이 ▲ = 1.3으로 “미래의 배우자 선택을 위한 좋은 경험(B)”과 같이 이성교제를 배우자 선택의 필수 전단계로 설명하였다. 임신에 대한 구조기능론 관점은 ▲ = 0.8로 “청소년기는 장래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이다(E)”, “임신은 인간 사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G)”처럼 임신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나타내었고 임신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중학교 가족관련 단원에서 성·이성교제와 임신에서 나타난 건강가정 관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6. 전체 분석요소의 관점 비교

가족구조, 가족역할, 가족관계, 의사소통, 성·이성교제와 임신 총 5가지 분석요소의 하위분석요소에서 나타난 구조기능론과 건강가정 관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여러 하위요소를 합한 각각의 분석요소에서 나타난 구조기능론과 건강가정 관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5개의 분석요소에서 나타난 관점들을 분석요소별 비교한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초·중학교 실과(기술가정) 교과서 가족관련 단원의 관점을 구조기능론과 건강가정 관점으로 비교해본 결과 초등학교 ‘우리의 가정생활’ 단원은 가족구조, 가족역할 분석요소에서 건강가정 관점이 많게 나타났으며 가족 관련 단원의 전체 분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다른 분석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다.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에서 가족구조, 가족역할, 가족관계, 의사소통, 성·이성교제와 임신 5가지 분석요소 모두 건강가정 관점보다 구조기능론 관점이 더 많게 나타났다. 구조기능론 관점이 가장 많이 나타난 순서로 나열하면 가족관계(▲ = 29.7), 의사소통(▲ = 21.9), 가족구조(▲ = 7.5), 성·이성교제와 임신(▲ = 6.9), 가족역할(▲ = 3.3)로

나타났다. 건강가정 관점이 구조기능론 관점보다 전체적으로 적게 나타났지만 건강가정 관점이 많이 나타난 순서로 나열하면 가족관계(★ = 19.7), 의사소통(★ = 4.7), 가족구조(★ = 2.2), 가족역할(★ = 1.5)로 나타났으며 성·이성교제와 임신 분석요소에서는 건강가정 관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초·중학교 실과(기술가정) 교과서 가족관련 단원에 나타난 관점의 총계를 살펴보면 구조기능론 관점이 총 ▲ = 69.5로 건강가정 관점 총 ★ = 30.3보다 약 2.3배 이상 많게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 실과(기술·가정)교과서의 가족관련 단원에서 가족이 어떠한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구조기능론 관점과 건강가정 관점으로 비교분석하여 가족 관점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요소를 가족구조, 가족역할, 가족관계, 의사소통, 성·이성교제와 임신과 같은 5가지로 구성하여 계량·심층 분석하였다. 심층 분석은 본문과 참고자료를 대상으로, 계량분석은 본문과 참고자료, 사진과 그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우리의 가정생활’ 단원은 가족구조, 가족역할 분석요소에서 건강가정 관점이 둘 다 많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조에서 구조기능론 관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관련 단원의 전체 분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다른 분석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다.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에서 가족구조, 가족역할, 가족관계, 의사소통, 성·이성교제와 임신 5가지 분석요소 모두 구조기능론 관점이 건강가정 관점보다 많게 나타났으며 성·이성교제와 임신에서는 건강가정 관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구조 계량분석에서 사진과 그림은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예나 가족구조 명칭에서

<표 IV-10> 구조기능론 관점과 건강가정 관점 비교

| 분석요소 | 초등학교 우리의 가정생활 | |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 | 총 계 | |
|---------------|------------------|-----|------------------|------|----------|---------|
| | ▲ | ★ | ▲ | ★ | 구조기능론(▲) | 건강가정(★) |
| 1. 가족구조 | 0 | 1.0 | 7.5 | 2.2 | 7.5 | 3.2 |
| 2. 가족역할 | 0.2 | 1.2 | 3.3 | 1.5 | 3.5 | 2.7 |
| 3. 가족관계 | 0 | 0 | 29.7 | 19.7 | 29.7 | 19.7 |
| 4. 의사소통 | 0 | 0 | 21.9 | 4.7 | 21.9 | 4.7 |
| 5. 성·이성교제와 임신 | 0 | 0 | 6.9 | 0.0 | 6.9 | 0.0 |
| 총 계 | ▲ | ★ | ▲ | ★ | ▲ | ★ |
| | 0.2 | 2.2 | 69.3 | 28.1 | 69.5 | 30.3 |

나타난 가족구조는 건강가정 관점으로 나타났다. 가족역할 계량분석에서 사진과 그림,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예에서 나타난 부모의 역할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양성불평등한 구조기능론 관점이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한다.

첫째, 초등학교 가족구조 심층 분석에서는 건강가정 관점으로 나타났으나 이 결과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개념을 구조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전미경 외, 2007)의 결과와 상반된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실과 교과서의 가족 관련 단원인 '우리의 가정생활' 단원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우리의 가정생활' 단원 외에 다른 단원 및 초등학교 전체 교과서에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이 많이 제시되어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가족구조 계량분석에서 중학교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에는 다양한 구조의 가족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전체적인 가족구조가 고루 제시되지 않고,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할 때에도 핵가족과 같은 하나의 가족 유형으로만 제시되는 것으로 볼 때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초·중학교 가족관련 단원개관 사진과 그림이 가족으로 제시된 경우 모두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제시하여 가족이미지로 핵가족·확대가족을 떠올림으로써 가족의 대표적 구조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 관련 단원의 단원개관 내용을 가족의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사진과 그림이 개재되면 학생들이 가족에 대해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초·중학교 가족 관련 단원에서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예나 가족구조 명칭에 나타난 가족구조가 사진과 그림에 나온 가족구조보다 횡수가 더 적었다. 사진과 그림에 나타난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많았던 반면, 본문과 참고자료에서 나타난 가족구조는 기타 가족이 많았다. 그 이유는 가족을 형상화 할 때 핵가족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족을 설명하는데도 핵가족을 이미지화하였기 때문이며, 본문과 참고자료에서 기타 가족구조를 예를 들어 열거하는 경향이 사진과 그림에 나열하는 경향보다 더 많았고 다양한 구조의 가족을 열거할 때에도 기타 가족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미지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반적 가족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핵가족이나 확대가족만을 이미지화하지 않고, 다양한 가족을 설명할 때에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미지화하는 인식이 요구된다. 그리고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가족을 예로 들어야하는 상황일 때에는 일관된 가족구조만을 다루지 않고 여러 가족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가족의 구조가 급변하며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데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둘째, 가족역할 계량분석에서 사진과 그림, 본문과 참고자료의 가족 예에 나타난 부모의 역할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선행연구(강선미, 2004; 김미정, 유태명, 2004; 김선경, 2002; 정해숙, 2003)에서 제시된 것처럼 양성불평등한 구조기능론 관점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본문 및 참고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가족역할에 대한 설명은 건강가정 관점이 많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가족역할에 대한 설명이 서로 돕는 가정생활, 성역할과 현대 가족의 변화, 부모의 역할처럼 양성평등적 역할 공유에 대해 설명해야하는 단원에서 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문 및 참고자료에서 가족역할이 설명되는 경우에는 양성성과 역할 공유를 강조하며 그에 따른 사진이나 그림도 역할 공유하는 모습으로 제시되어 건강가정 관점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으나, 일반적인 내용에서 사진과 그림, 본문과 참고자료의 예에 제시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은 표현적 역할이 어머니에게 집중된 구조기능론 관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교과서에서 가족역할을 접근할 때, 양성성 및 역할 공유 외에 다른 내용을 설명할 때에도 능력과 상황에 따라 역할을 공유해야 함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가족관계에서 가족관계에 갈등이 있음을 제시하지 않고 원만하고 규범적인 관계를 강조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갈등과 다양한 가족 문제를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문제해결 방법이 대부분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이어서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제공해야함이 요구된다. 또한 가족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사회기관을 소개하고 교육과 상담을 이용하는 방법과 가족의 친밀감과 결속력·적응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면 앞으로 더 다양하고 심각해질 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의사소통 측면에서 부정적 의사소통보다 긍정적 의사소통을 강조하여 구조기능론 관점이 건강가정 관점보다 많이 나타났다. 부정적·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긍정적 의사소통에만 치우쳐서 제시하지 않고 부정적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특징이나, 종류, 다양한 예를 제시해야함이 요구된다. 그리고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효과적인 활동자료를 적절히 제공하여 가족문제해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가족의 갈등 및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기능적으로 해결해 나가서 가족이 결속력과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는 건강가정 관점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성·이성교제와 임신에서 구조기능론 관점이 건강가정 관점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건강가정 관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 결혼을 전제로 성, 이성교제가 규범적·생리적으로 접근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론적 설명보다는 심대의 임신이 아닌 심대의 성관계, 다양한 매체로부터 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 이성친구와 긍정적인 관계 만들기, 데이트 폭력과 같은 현실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리고 선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비판적인 판단을 하여 가치관과 태도를 확립하고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접근되는 것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교과서를 집필 할 때 본문, 참고자료, 사진 및 그림에서 다양한 가족이나 역할 공유를 설명할 경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양한 가족 및 역할 공유를 나타내야 함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족 문제가 많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혼·재혼, 가정폭력,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의 양립, 자녀양육 문제 등 구체적인 가족 문제와 다양한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문제해결의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친밀감·결속력·적응력 등 가족의 내적 기능을 높이는 방법을 심도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사회기관의 교육·예방·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정보를 제시해야 함이 요구된다.

둘째, 교사들은 건강가정 관점의 중요한 개념들을 적용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야한다. 건강가정 관점과 관련된 내용은 간략하게 또는 내용 마무리와 같은 끝부분에 약하게 제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문 내용만을 강조하여 다루지 않고 다른 글자에 비해 크기가 작은 글씨로 나타나 있거나 또는 적은 면적의 참고자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뒷부분에 제시된 활동자료들을 미리 살펴보고 수업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해야 함이 요구된다.

셋째, 가족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기에 7차 교육과정의 개정되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현재 변화된 가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되는 교과서에서 핵가족을 정상가족화하는 구조기능론 관점은 앞으로 가족의 구조가 더욱 다양해지고 다문화 사회로 변하며 가족의 개념이 확대되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과서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져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가족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제시해야함이 요구된다. 그리고 새롭게 개정되는 교과서에는 현대 가족에게 필요한 건강가정 관점의 중요한 요소들을 선별하여 초·중·고에서 내용의 중복 없이 심화·발전되도록 내용 요소를 체계화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야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사진과 그림, 본문과 참고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활동자료는 분량이 많고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활동자료에 나타난 가족 관점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한다면 활동자료를 개발하고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초·중학교 가족 관련 단위뿐만 아니라 실과(기술·가정) 교과서 전체에 제시되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면 전반적인 가족관점을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건강가정 관점으로 접근한 학습자료와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적용하여 학생들의 관점의 변화와 가족생활이나 가족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 등이 연구되어야 함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앞으로 가족이 건강해지고 개인 발달을 도모하며 든든하고 균형 잡힌 회복력 있는 가족이 되기 위한 건강가정 관점이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집필 및 교수학습에 적용되는데 참고자료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선미(2004). 7차 가정교과에서의 양성평등교육내용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기남호, 최유현(2004). 초, 중등학교 실과(기술·가정)교과서 내적 체제의 비교 분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4(2), 18-33.
- 김명자, 장지연(2006). 고등학생의 가정과 교과에서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 요구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4), 143-156.
- 김미정, 유태명(2004).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家政 교과서 삽화의 단일월 계량적 내용 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6(4), 27-41.
- 김선경(2002). 6, 7차 실과, 가정, 기술, 기술·가정 교과서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희(2001). 초등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성별 편중성.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유경(2005). 한국, 일본, 대만의 가정 교과서 식생활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손주영, 이연숙, 이윤정, 정선희, 전진유, 김윤선 외(2006). 중학생과 학부모의 청소년을 위한 건강가정 교육에 관한 요구도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1), 95-111.

- 손태룡, 이정애(2004).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 삽화 분석. **과학교육연구**, 29, 91-111.
- 신상옥, 유태명, 한규정, 윤지현, 홍정숙, 김유정 외(2000). 중학교 가정교과의 열린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업 모듈 및 웹 기반 교육자료 개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3), 19-38.
- 양순미(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정혜(2004).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 내용의 재구조화.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정혜, 김지경(2002). 구조기능 이론의 관점으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I. 나와 가족생활」 단원 내용 분석. **대한국정학회지**, 40(12), 1-11.
- 유계숙(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 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 유영주(1994).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한국아동학회 94년 추계학술대회집**, 25-42.
- 유영주(2002). 건강가족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생활과학논집**, 6(1), 1-24.
-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유태명(1998). 중학교 가정 교과와 다른 교과의 교육내용 관련성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1), 77-93.
- 유태명(2006). 가정과교육에서 「나와 가족생활」 영역의 교육 목표와 내용체계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2), 79-95.
- 윤인경(2004). 제6차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가정교과서 비교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4), 1-8.
- 이연숙(2001).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중학교 가정교과서 가정관리분야 단원의 변천과정 분석(I).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1), 73-91.
- 이정규, 김명자, 모태화, 박미정, 박선영, 조재순(2003).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주생활 단원 영역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2), 35-54.
- 이지영(2002). 초등학교 실과와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가족과 일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춘희(2001). 초등학교 실과교과에 반영된 가정과교육 내용 분석.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미경, 노영주, 이진경, 김자영, 김지영(2007). 초등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개념 연구 I: 가족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67-186.
- 정미경(1998). 창의성 관점에서의 중학교 가정과 교과서 내용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1), 171-183.
- 정선희, 조병은(2007). '나와 가족관계' 단원에 대한 중학생의 긍정적 인식, 실천성 인식과 가족건강성.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1), 99-114.
- 정수경(2004).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의 '가족생활' 영역 연계성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해숙(2003). 중등 가정과 교육의 성격에 관한 성인지적 접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2), 55-66.
- 정현숙(2007). **가족생활교육**. 서울: 도서출판 신정.
- 정현숙, 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도서출판 신정.
- 조희금, 박미석(2004). 건강가족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331-344.
- 최정혜(2002).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4(1), 15-25.

(2007년 12월 31일 접수, 2008년 2월 12일 채택)